



## 9.9 투쟁선포대회 및 추모식

### 개최 배경

지금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참가국들은 관세화유예의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MMA)의 양을 대폭 늘리거나 국영무역형태의 수입쌀에 대해 민간참여를 허용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올 4월 1일부터 칠레와 FTA를 발효한데 이어 2004년 싱가포르, 2005년 일본, 2012년 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할 전망이다.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이 진행되면서 9개 쌀 수출국들의 국내 시장 잠식을 위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고 DDA농업협상에서는 관세 상한 설정, 관세 대폭 인하, 국내 보조금 대폭 감축 등의 내용으로 기본골격이 합의됨으로써 어느 때보다 농업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식량난의 조짐이 현실화되고, 석유위기와 각종 국제분쟁으로 경제·안보상황이 악화되는 이때, 쌀을 관세화로 완전 개방하면 우리 농업은 물론 국민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닥쳐올 수 있다.

이경해 열사의 희생으로 일깨운 WTO 세계화의 허구와 전 세계 가축 농, 중·소농들이 고통에 공감하는 세계의 농민운동 지도자들이 결합해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쌀 시장 개방과 농민의 몰락은 곧 식량안보와 국민생존마저 위협한다는데 공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교감도 투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농업에 미치는 외부적 충격이 작년보다 심각하고 농업 위기 극복과 근본적 농업회생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농협법 개정을 둘러싸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개정 과정에서 왜곡의 여지가 남아 있고, 농민단체에서 주장한 신경분리, 도지역본부

## 한농연 5대 핵심 요구사항

- 하나. 쌀 관세화 유예 관철, 쌀 시장 추가 개방 반대, 수입쌀 식용 판매 금지
- 둘. 식량자급계획 법제화
- 셋. 목표소득 지지제도 도입 및 직접지불제도 확대 시행
- 넷. 농협법 연내 개정 및 농림부 내 농협개혁위원회 설치
- 다섯. 농가부채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 열사정신 계승! 10월 5일 농민대회로

장 선출, 시군지부 폐지 등의 문제는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제 이경해 열사의 1주기인 9월 11일을 전후로 열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350만 농민들의 의지를 모아 하반기 한농연 농권운동의 결정적 계기로 활용해야 하고 특히 한농연의 요구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개최하여 대정부, 대정치권 압박을 가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농연은 하반기 강력한 농권운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농연 5대 핵심 요구사항

하나. 쌀 관세화 유예 관철, 쌀 시장 추가 개방 반대, 수입쌀 식용 판매 금지  
향후 10년간 관세화유예를 지속하고 의무수입

물량(MMA)을 4%로 유지하고 수입쌀은 전량 국영무역을 통해 가공용으로 처리하라

#### 둘. 식량자급계획 법제화

논 면적 100만ha 확보 등 적정규모의 식량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식량 및 사료용 곡물의 자급계획을 법제화하라

#### 셋. 목표소득 지지제도 도입 및 직접지불제도 확대 시행

쌀을 포함하여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작목을 중심으로 목표소득 지지제도를 도입해서 기준년도 단위면적당 순수익(실질소득 기준)을 보장하고 현행 논농업직불제를 목표소득 지지제도 하에 편재하고 단가를 선진국 수준(100만원/ha)으로 인상하고 대상농지 면적 상한선을 6ha로 상향조정하라. 또한 연간 농가의 취득 소득 및 소비 지출액을 파악하여 월별 농민최저생계비를

산출해 농가 생활의 최저 선 보장하라

### 넷. 농협법 연내 개정 및 농림부 내 농협개혁위 원회 설치

농협법을 연내 개정 완료하고 농림부 내 농협 개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중앙회 신경분리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의 민주적 투명 경영을 앞당기기 위한 각종 개혁 조치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 다섯. 농가부채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 개선을 통해 연체 및 신용불량 농민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지원을 강화하라

## 진행상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쌀 사수, 농협개혁을 위한 350만 농민투쟁 선포대회 및 이경해 열사 1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투쟁선포식은 전국 시군 단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우리쌀을 지키고자 하는 이번 시위는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종교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농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냈다.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시민단체 연합은 9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우리 쌀사수, 농협개혁을 위한 350만 투쟁선포식' 기자회견을 갖고 투쟁의 점화를 지켰다. 한농연



9월 9일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한농연 및 농민·시민단체가 우리 쌀 사수·농협개혁을 농민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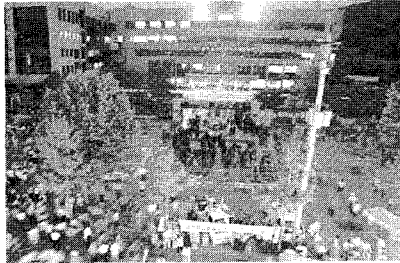
산하 각 시·군 연합회는 100여 곳에서 투쟁선포대회를 개최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허상만 농림부장관을 만나 ▲쌀 관세화유에 관철 및 추가개방 저지 ▲식량자금을 법제화 ▲농협법 연내개정 등을 주문하고 이후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을 찾아가 농협개혁을 촉구했다. 이경해 열사 추모 열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세계 농민들의 연대조직인 '비아캄페시나'가 10일을 '이경해 열사 추모 및 WTO반대를 위한 국제 공동의 날'로 선포하면서 일본, 멕시코, 스위스 등 80여개국 농민들이 참여 "농민을 죽이는 WTO는 농업과 수산업으로부터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 투쟁선포식 지역별 상황

- 경기도 한농연경기도연합회 회원 300여명이 각 시·군별로 선전전을 마치고 10일 농협경기지역본부 광장에서 새벽 4시까지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연천·동두천 지역의 농민 500여명도 10일 연천농협 앞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했다.
- 강원도 9일 평창군 횡계에서 한농연 강원도연



9월 10일 전국 각 시·군에서 우리쌀 사수, 농협개혁을 위해 동시다발 투쟁을 진행했다. 맨 우측사진은 이열사가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위해 단식투쟁을 하는 모습이다.



합회 회원 등 1,200여명의 농민들이 투쟁선포식을 갖고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적극 대응기로 결의했다. 9일과 10일에는 한농연, 전농 등이 연대해 시·군별로 대회를 통해 투쟁수위를 고취했다.

●**충북도** 11개 시·군에서 9~10일 투쟁선포식을 일제히 개최했다. 9일 음성군 북개천에서 시작된 농민대회를 필두로, 영동군 농기계반납시위 등 시·군별로 농민들은 군청과 농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충북지역에서 5,000여명의 농민들이 이번 집회에 참여했다.

●**충남도** 11일 예산, 계룡, 논산, 태안 등 4개 시·군에서 이경해 열사 추모 및 농협개혁을 촉구하는 투쟁선포식 거행했다. 특히 예산지역농민단체협의회는 9일, 오가면 역담리에서 논 100여평을 갈아엎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전북도** 한농연전북도연합회가 참가하고 있는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주관으로 9일 투쟁선포식을 거행했으며 전북도내 93개 시민·사회단체도 농민들의 투쟁에 적극 동참했다. 또한 전북도내

14개 시·군 농민들은 9일부터 11일까지 농기계 반납 시위와 함께 12일 1만 여명이 전주 시청 앞에서 쌀수입 반대 투쟁을 실시했다.

●**전남도** 1일 해남·진도 농민들이 쌀 개방에 항의하며 쌀개방 찬반 국민투표, 논 갈아엎기 투쟁 등을 시작으로 10일 각 시·군별로 8만 여명의 농민들이 식량주권사수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했다. 특히 전남도연합회는 6개 시군에서 군민투표 실시를 확약 받아내는 성과를 얻었다.

쌀 개방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펼칠 것을 밝혔다.

●**경북도** 9일 칠곡·예천군에서 한농연 회원들이 농기계 반납투쟁을 벌였으며, 상주·칠곡·울진 지역 농민들은 농협 시·군지부 앞에서 밤샘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경산·영천·성주 등 7개 시·군에서 한농연경북도연합회와 전농경북도연맹이 공동으로 투쟁했다.

●**경남도** 10일 진주에서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 주도로 5,000여명의 농민들이 진주시민대회

9.9 투쟁선포대회 및 추모식

를 개최하는 등 김해·사천·의령 등 경남지역 12개 시·군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한농연합양군연합회는 500여명이 회원들이 함양농협 앞에서 함양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삭발식 및 거리행진을 실시했다.

● **제주도** 10일 우리쌀지키기·식량주권수호 제주운동본부 주관으로 3,000여명이 농민들이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제주농민대회를 개최했다. 농민들은 대회가 끝난 후 도청 앞까지 가두시위를 하고 밤샘 천막농성을 진행했으며 11일에는 쌀개발 찬반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9월 11일 이경해 열사 1주기 추모식

이경해 열사의 1주기 추모식이 지난 11일 맑은 빗줄기와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열사의 고향인 전북 장수 공설운동장에서 이경해열사기념사업회 주체로 개최됐다. 추모식에 앞서 오전 11시에 고인의 묘소에서 묘제가 치뤄졌고, 오후 2시 추모식과 추모비 제막식이 거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족과 한농연 전·현직 임원, 각계 농민단체 및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식에서 서정의 한농연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저와 이 자리에 함께 한 동지들은 어느 때보다 높은 결의로 열사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있습니다”며 열사를 기렸다. 이날 서회장은 호느끼는 목소리로 추모사를 낭독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이어 강춘성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이경해 열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이경해 열사 추모비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도상 소설가는 ‘지상의 모든 님, 이경해!’ 라는 시를 통해 열사를 추모했고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이삼헌씨는 살풀이춤을 통해 고인의 넋을 달랬다. 추모식을 마친 뒤 서정의 회장을 비롯한 내외빈 참석자들은 한켠에 세워진 ‘이경해열사 추모비’ 제막식을 갖고, 추모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영정에 헌화함으로써 이날 추모식을 모두 마쳤다. **민농연**

향후 투쟁일정

- 도 연합회별 대회 개최
  - 10월 5일(화)
  - 각 도 연합회 주최 집회 개최
  - 의원 소환운동 전개 → 핵심 농정요구사항 관철 서명운동 전개
  - 미소환 의원은 10월 초 국회 항의방문, 중앙연합회는 동시에 각 당 지도부 항의방문
- 중앙 집중 전국농민대회 개최
  - 11월 19일(금), 서울